



蜂療와 蜂針療法에 관한 임상실험레 및 연구논문選集<7>

高 相 基 / 韓國蜂針療法硏究會 會長, 國際蜂療保健蜂針學術硏究會 副會長

③뇌동맥경화증 : 뇌동맥 경화증은 뇌 자체가 병적으로 변한 것이 아닌건만 동맥이 경화되어 산소 등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다. 예컨대 머리가 무겁다. 머리가 아프다. 현기증이 난다. 팔다리가 저리다. 어깨가 결린다, 따위가 그것이다. 또한 가벼운 환각이나 망상에 사로 잡히기도 한



고상기회장

다. 그러나 뇌동맥 경화증에는 치매가 없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치매와 다른 점은 치료에 반응을 보이는 것, 예컨대 뇌의 혈관을 넓혀서 혈류를 많게 하는 봉침은 뇌혈관 확장으로 뇌 세포의 대사를 개선하는 “뇌대사 부활” 등에 반응을 나타낸다.

④신경증(노이로제) : 치매의 초기 증상은 신경증과 혼동하기 쉽다. 치매의 초기에는 기억력 장애 등을 호소하는데 신경증의 경우에는 그런 장애를 볼 수 없다. 설사 신경증으로 말미암아 감정 반응이나 판단력에 이상이 있더라도 그 원인은 감정적인 내적 갈등에 불과하다.

⑤정신분열증 : 나이드 사람에게는 정신분열증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정신분열증 환자는 사고 방식이 비논리적이 되어 주위 사람들을 어이없게 한다. 한편 치매의 경우에는 사고력은 불충분하지만 결론은 납득할 수 있는 점이 대조적이다. 또한 치매의 경우에는 감정 표출이 과장되는데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어 안정된 인상을 준다. 또 분

열증엔 기억력 장애가 없으면 지적 능력은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이 밖에도 치매같은 증상을 보이는 병은 많으나 원인이 되는 병적 상태를 봉침 치료하면 치매증상은 사라진다.

6-3. 뇌의 동맥경화

치매의 대부분은 뇌혈관과의 병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특히 뇌의 동맥경화 그로 인한 뇌경색이 뇌혈관성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뇌의 동맥을 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노릇이 요체인 셈이다. 또한 뇌의 경색에는 특히 “작은 뇌경색”의 다발을 예방하는 노릇이 중요한데 봉침은 작은 뇌경색을 풀고 다발을 예방하는데 큰 효능이 있다.

우리의 몸 속을 누비고 있는 동맥의 벽은 세 겹으로 되어 있다. 뇌의 동맥도 예외는 아니다. 내막(內膜), 중막(中膜), 외막(外膜)이다. 동맥 경화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진 상태다. 모양새로 보면 세 겹의 갈피들이 문란해지고 대개의 경우 동맥 속이 좁아져 있다.

이런 동맥경화의 원인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원인을 규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동맥 경화를 모양새를 가지고 분류하면 죽상경화(竹狀硬化)와 중막의 석회화 등으로 구분한다. 뇌의 혈관장애의 원인으로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죽상경화’가 많다. 동맥의 내막에는 지방이나 혈액 속의 물질 등이 고여 있다. 때로는 석

회도 엉켜 붙어있다. 이런 변화는 혈액이 흘러 다니는 내막의 바깥층 뿐 아니라 중막에도 나타난다. 주로 지방분인 침착물과 내막이 변한 것이 섞여서 죽 모양으로 보이니까 “죽상경화”라고 한다. 이런 상태가 바로 동맥경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동맥의 벽의 성분은 어떻게 변해갈까? 동맥의 벽에 함유된 지방분은 나이에 따라 증가된다. 동맥경화가 심할수록 지방분이 많다. 그 지방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개중에서도 콜레스테롤이 대표로서 동맥경화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그밖에도 중성지방과 인지질 등이 있다. 뇌의 동맥에는 대체로 동맥경화가 강하게 나타나기 쉽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경향은 두드러져 70세가 지나면 약 반수 이상의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뇌의 동맥경화는 심장의 경우와 달라 고지혈증보다 고혈압 쪽이 보다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한 마디로 뇌의 동맥이 경화된다면 그것도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머리의 앞의 약 3분의 2 부분에다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내경(內頸) 동맥계와, 다른 하나는 머리의 뒤쪽 약 3분의 1 부분에다 혈액을 공급해주는 추골(椎骨)동맥계다.

동맥경화가 가장 나타나기 쉬운 곳이 내경 동맥이 연장된 것처럼 돼있는 중대뇌(中大腦) 동맥이다. 이곳이 운동과 지각의 중추를 부양하는 곳이므로 여기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하면 운동과 지각이 손상을 입는다.

6-4. 치매예방은 식생활 개선부터

치매는 고칼로리식과 관련이 깊다. 고칼로리 식이란 음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가 지나치는 것이다. 체내에는 지방분이 지나치게 합성되기 때문에 문제다. 개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에도 몸

에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있으니 이로운 것을 늘리고 해로운 것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체내에 에너지가 지나치게 들어오면 살이 찐다. 살이 너무 찌면 동맥경화가 촉진되므로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심장에 부담을 주고 고혈압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당뇨병에 걸리기도 한다. 당뇨병은 뇌혈관을 비롯해서 체내의 여러 장기의 동맥을 경화시켜 결과적으로 치매가 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칼로리식-비만-운동부족-운동곤란’이라는 귀추는 뇌의 순환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혈청 속에 지방이 과다한 “혈청지질이상”에 관하여 식사에 함유된 지방의 질이 중요시되고 있다.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에 관한 영향력이 주안점이다.

이상과 같은 치매(노망)예방 및 치료는 쉽지 않으나 이에 봉침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6-5. 예방치료에 대한 봉침의 효능과 치료혈

봉침은 침, 뜸, 약의 삼중작용을 한다.

경혈이나 환부에 충격 또는 자극을 주는 것은 침과 같은 작용이요 침을 맞는 부위가 뜨거워지는 것은 뜸과 같은 작용이며 벌침의 독액이 주입되는 것은 약과 같은 작용이다.

봉침의 독액 속에는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40여가지 단백질이 들어있어 오장육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회분, 철분, 칼슘이 있어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 또 폐니실린 1천배에 상당하는 약효가 있다.

봉침액은 물리적인 단일 자극으로 피하조직을 지나 인체의 깊은 곳 뇌까지 신속하게 침투한다. 뇌에 침투하면 전기, 생리작용, 자율신경 및 내분비계의 호르몬 분비조절 스트레스 및

동맥경화를 해소하고 염증을 없애며 피를 막게 하고 진통, 진정, 살균, 해독작용을 함으로써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되고 뇌혈관 경화가 풀리면서 뇌세포가 건강해져 치매(망녕)가 치료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도 안도의 숨을 쉬고 가정의 평화를 찾게 되어 건강하게 노후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치료혈로서는 첫째 基本治療穴(優先刺針點)에 의하여 全身治療하고, 그 다음에 정영(正營), 통천(通天), 백회(百會), 천주(天柱), 풍지(風池), 수삼리(手三里), 신문(神門), 풍문(風門), 찬죽(攢竹), 객주인(客主人), 신주(身柱), 음백(陰白), 팔총신(八總神), 합곡(合谷), 태충(太衝)

7. 각종 질환별 봉침치료 臨床例

○본문은 한국봉침료법연구회 제18회 연수회에서 발표된 것임.

○발표=한국봉침료법연구회 이사 金榮根

그간 많은 종류의 질병을 봉침으로 치료해 오면서 성공과 실패의 연속으로 보람과 허탈, 자책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근대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복잡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학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장단점을 알게 된 후부터 그 眞因을 캐서 질병을 고치려고 다양한 각도에서 규명해보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없던 난치성 질병이 생겨나 병원에서조차 원인도 병명도 못찾아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아 고명한 원로 의사선생님들도 내가 왜 의사가 되었는고 하며 탄식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복잡하고 난치적인 병이 발생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 의학도 발달하겠지만 병을 제압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

리 인간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불멸의 공해 가운데에서 어떻게 탈피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공해 식품을 생산하여 이용하며 운동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생활 패턴을 바꾸어 건강 증진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연을 훼손하면 훼손할수록 인간은 자멸의 길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이 점을 각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蜂針液도 생약으로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정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술하고 있는 봉침요법이 병치료에 효능이 크다고는 하나 봉침이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봉침치료가 많은 종류의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봉침치료가 어떠한 질병에도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봉침만으로 현대의학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이 신기할 정도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봉침으로 치료가 잘 안되는 질병도 많습니다.

같은 종류의 질환이라도 환자에 따라 잘 치유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환자 체질에 따라 병치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봉침으로 치료를 잘 하려면 많은 임상실험과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7-1. 봉침치료 임상실험 예

▶임상예 1

김모(남) 나이 45세, 모회사 상무 약 1년 전부터 발등이 붓고 통증이 있어 서울 현대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전혀 낫지를 않아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다 우연한 기회에 봉침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1주에 3회 4주를 치료했는데 많이 좋아져 걷는데 지장이 없다

고 하기에 좀더 치료해서 완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여 다시 4주를 치료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라고 하였다. 진찰결과 병원에서는 완치되었다고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니 참으로 신기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붙인 병명은 CELLULTIS(봉와직염)

● 치료혈

①대저 ②양능천 ③현종 ④격유 ⑤용천혈을 취하고

아시혈 요법으로 발동에 환부를 중심으로 산자와 짝은 지침요법으로 치료하였음.

▶임상예 2

▷다발성 운동신경 장애

김모(남) 42세 모회사 차장, 약 5년 전에 발병, 처음에는 한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는데 풍기운갈다며 잘 모르겠다고 하여 그날 그날 지내는데 팔에 힘이 없어지며 수저도 들기 힘들고 글씨쓰기도 힘들었다고 함.

작년부터 차츰 더 심해져서 세브란스 신경외과 모 의학박사(우리나라에서는 신경외과에서 최고 고명한 의사선생님이라고 함)에게 진찰을 받아보았으나 뚜렷한 병명도 원인도 전혀 모르고 억지로 병명을 붙인다면 다발성 운동신경 장애라 하며 근전도 검사도 해보았으나 이렇다 하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치료를 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고 진단.

그래도 좋으니까 치료를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이러한 증상을 갖고있는 환자가 3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함.

치료를 받기로 하고 비싼 약을 주사맞아 왔는데 낫는 기미가 전혀 없어 고민하던 중 친구로부터 별침을 맞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저를 찾아왔기에 봉침치료를 해주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년간 치료를 하고있는 환자입니다.

처음에는 1주에 3회 시술을 하다가 지금은 1

주에 2회로 줄이고 있는데 많이 좋아져서 수저는 물론 글씨쓰는데도 별 지장이 없고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 치료혈

치료혈은 팔로 연결되는 신경이 경추에 있으므로 경추 주위를 골고루 자침하고 ①견정 ②병풍 ③곡원 ④거골 ⑤천종 ⑥지장 ⑦침료 ⑧견우 ⑨비노 ⑩곡지 ⑪주료 ⑫수삼리 ⑬은류 ⑭양계 ⑮합계 ⑯삼안 ⑰이간 그리고 압통점을 골고루 취혈했습니다. 현재도 1주에 1회씩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임상예 3

▷견비통(좌측)

이 某(女) 56세, 이 부인은 약 7년 전부터 견비통 증상이 생겨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약도 써보았지만 회복이 안되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왔다고 하며 봉침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임.

우선 진찰을 하기 위하여 그 부인을 엎드리게 하고 천종혈 부위를 눌러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며 통증을 호소하여 앉여놓고 두손을 환자의 겨드랑이 넣고 두손바닥을 목에 얹어 놓고 지긋이 밀어 교정을 하니까 입을 벌리며 통증을 호소해 다시 엎드리게 하고 어깨를 위시해서 삼각골 부위를 안마 형식으로 고르게 문질러주니까 시원해 했습니다.

● 치료혈은

①풍지 ②천주 ③견정 ④견외유 ⑤천종 ⑥곡원 ⑦거골 ⑧병풍 혈을 취혈한 다음 다음날 아침 전화로 너무너무 신기하다며 다 나은 것 같다고 말하기에 몇번 더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8회 더 치료하여 현재 완전 치료되었음.

다음호에 계속